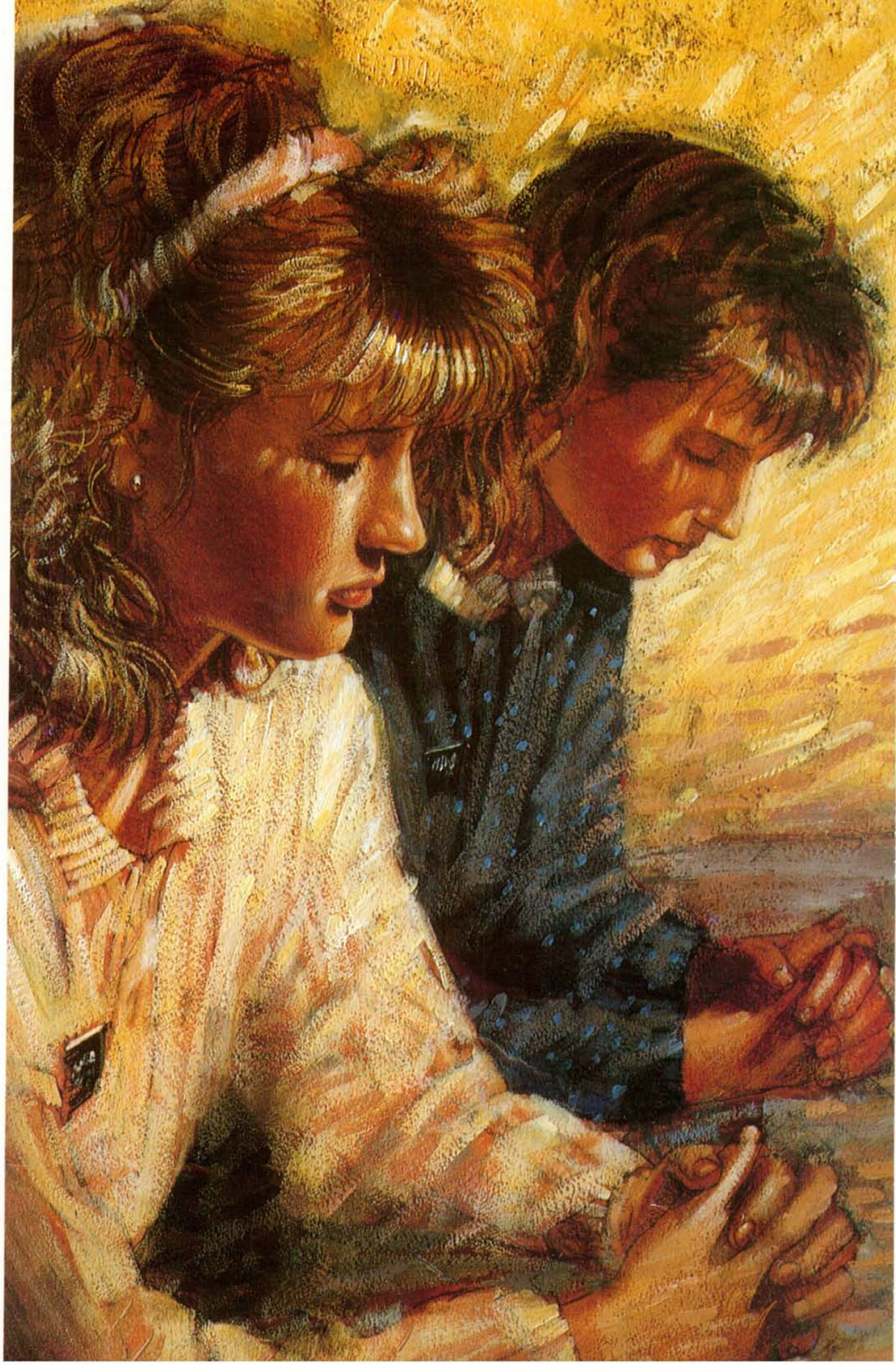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역

2 1996

특별 부록 : 어린이판





표지 설명:

표지 그림은 우리가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 (골 4:17) 해야 한다는 영물레크의 권고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34쪽의 "하나님께 간구하라" 참조 앞 표지: 그림: 래리 윈보그 신앙심이 깊은 지매들 뒤 표지: (위쪽) 그림: 에이 디 쇼 기도 (아래쪽) 그림: 키스 리슨

어린이란 표지 설명:

이 그림에 몇 마리의 동물이 틀어 있었을까요? 화가 스티븐 더블류 켈리는 그림의 제목을 *하나님이 가리시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리라고 하였다* (창세기 1:20~25 참조)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2
 "영광스러운 기록" 로버트 엘 밀레트 14
 내 발에 등이요 카르멘 로드리게스 디 푸엔테스 22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킴 크렌샤 소렌슨 28
 "하나님께 간구하라" 34
 도움의 손길 보니 헨스 켈리 45

청소년란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이언 손더스 10
 실험
 하이디 해리스 13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코로 오니아부치 21
 질의 응답: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25
 효과적인 경전 공부를 위한 제언 리사 엠 그로버 40
 단 둘이 보내기 트레이시 배런드 42
 성전 봉사 로리 립시 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33

어린이란 (별책 부록)

몰몬경 이야기: 대관사가 암살 당함 2
 이야기: 잃어버린 반지 린다 리 테니 7
 친구가 친구에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0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카렌 애쉬트 12
 친구에게: 제이미의 말씀 14
 심심풀이 16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각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게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내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아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윌 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밥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리 에이치 옥스, 영 러셀 볼러, 조셉 비 웨슬러,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러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쿤다, 윌 라이오넬, 캔들릭 교과 과장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올 니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편집시스템:
관리 편집인: 미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셸
편집인 보조: 어린리안: 디앤 워커
편집/제작부장: 매리언 마틴태일
제작보조: 베스 태일리

디자인시스템:
잡지 그래픽 부장: 영 기외시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인: 세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커틀, 메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9호, 제 33권, 제 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 3166
발행일: 1996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현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덜랜드빌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신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8/94 번역 승인: 6/94 FEBRUARY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8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영적인 힘

성도의 벗을 읽음으로써 저는 영적인 힘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이 담겨 있는 대관장단 메시지는 제가 항상 진리의 편에 서게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전세계의 성도들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계명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범은 제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돕는 교회의 회원들에 관한 기사도 제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하거나 가르칠 때, 영감 받은 메시지를 자주 인용합니다. 저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서 성도의 벗이 차지하는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옥희
농성 와드
한국 광주 스테이크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책

개종하기 전, 저는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소설책과 잡지 등을 읽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후, 저는 우연히 레프와르(프랑스어 판)에서 "내게로 오라"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는 바로 저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영의 지시에 따라, 저는 그 기사를 몇 차례 읽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적인 어떠한 책과 잡지도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습니

다. 저는 매달 레프와르를 읽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의 성도들의 간증이 실린 기사를 즐겨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간증은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영을 느끼도록 모든 사람에게 교회 잡지를 읽고 활용하도록 권유합니다.

보고타 비 루이슨
킨수카 제1와드
자이르 킨샤사 마시나 지방부

두 번의 축복

저는 원래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와드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회원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저희 와드에 부름 받아 왔을 때 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콜롬비아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판 리아호나를 받아 보고 있었고, 그것을 제게도 주어 읽어 보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저의 나라 언어로 씌어진 복음과 관련된 기사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히아 안구로
닷마우쓰 와드
노바스코샤 닷마우쓰 스테이크

값진 보석

저는 교육 대학에 다니는 21세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고 있는데, 각 메시지와 이야기를 통해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리아호나가 빛과 지식의 값진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달 리아호나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구세주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저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친절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산드라 마리벨 로페즈 비자리알
사비나스 제1와드
멕시코 누에바 로시타 지방부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요

셉 스미스와 몰몬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일의 사업의 중심이 됩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사업에 대한 예언은 성경과 몰몬경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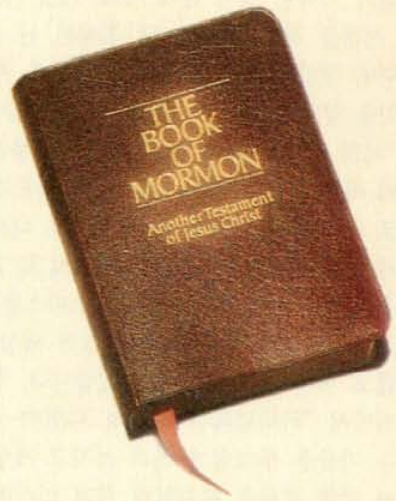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15~17)

성경과 몰몬경은 우리 손에서 하나입니다. 애굽에 있던 요셉은 시현을 통해 니파이인들을 보았으며,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증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저가 내 몸의 소산들의 으뜸된 선견자이리라고 하며,...



몰몬경은 왜 우리 종교의 종석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역사와 이론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한 교과서이다.

“네 몸의 소산들이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자손들이 또한 기록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들이 기록한 것과 유다의 자손들이 기록한 것이 함께 자라, 거저 가르침을 뒤집어 얹으며 논쟁을 잠잠케 하며, 네 몸에서 난 자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말일에 저들에게 저들 조상에 관한 것과 또한 나의 언약을 알게 하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 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니파이서서 3:6, 12, 15)

물몬경의 번역 과정은 요셉 스미스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실 당시, 그는 세상의 눈에는 무지하고 하찮고 아주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경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린도전서 1:27)라고 묘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도 다음과 같이 주님의 종에게 절대 필요한 자질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일... 타고난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어떤 사람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만큼 충실하고 겸손하다면 나는 유식한 사람보다 그를 택할 것입니다.” (교회 본부 모임 기록, 1839~1877년, 1859년 10월 23일, 2쪽)

그러나 겸손하고 배우지 못했으면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물론, 교사까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영은 그의 교사였으며, 물몬경 번역은 그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번역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뉴욕의 그 젊은이는 회복의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

니다. 물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2쪽)이듯이, 번역 과정도 예언자가 받은 교육의 종석이었습니다. (론 에스프린, 작가에 대한 사적인 메모, 1987년 6월 2일)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복음의 교리와 회복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해 준 중추적인 도구였습니다. 확실히 첫번째 시험은 어린 요셉에게 자신의 특별한 책임을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오로지 물몬경의 번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의 책임의 본질은 금판을 받기 전 4년 동안에 명백해졌습니다. 그 기록을 번역할 책임은 아마도 그가 금판을 입수하고 그 기록이 이 세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젊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판을 번역할 은사를 받았나니, 내가 네게 처음 부여한 은사라. 이로써 내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이 이상의 다른 은사를 요구하지 말 것을 명하였노라.” (교리와 성약 5:4)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번역의 은사가 단지 요셉의 첫번째 은사에 불과하며, 번역이 끝나는 대로 다른 은사와 책임이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물몬경이 번역되고 출판된 후, 예언자로서의 요셉 스미스의 임무가 얼마나 급속히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입니다. 물몬경이 번역되는 동안 신권의 권능과 많은 복음의 교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번역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첫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물몬경이 요셉 스미스를 위한 예언자의 걸음을 짚는 일과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회복하는 기초를 놓는 일에 다 필요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젊은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을 세상에 내놓는 동안에 회복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배웠습



물몬경의 번역 과정은 요셉 스미스를 위한 교육이었다. 요셉 스미스가 침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을 때,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각자 침수로써 복음의 기본 의식인 침례를 베풀도록 명하였다.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마친 후, 이어서 주어진 책임과 경험을 통해 요셉 스미스의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 갔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과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방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물몬경에 대한 작업은 요셉이 그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필수적인 토대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는 권고는 요셉에게 구원과 이해력을 위한 개인적인 탐구의 일부로써 성스러운 숲으로 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앙과 회개와 침례에 대한 물몬경의 힘찬 구절들은 또 다른 신성한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침례 요한의 방문, 신권

과 그 열쇠의 회복, 엘리야와 그 외 다른 하늘의 방문자들의 오심과 같이 풍성한 결실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물몬경에 대한 공격이 증가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회복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중심부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가 행한 영감 받은 일들은 편견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학자들이 그가 완전히 회복했던 것들의 유물과 기초에 대해 더욱 많이 연구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유산입니다.

구세주에 대해 했던 방식으로 요셉 스미스의 완전함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의 인간성은 그의 힘과 진실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인간적인 감정과 불완전함을 지닌 필멸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예언자는 1842년 10월 29일에 나부에 막 도착했던 교회 회원들을 권고하면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단지 인간에 불과함으로 완전함을 기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저 역시 그들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의 약점과 형제들의 약점을 참아 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약점을 참아 줄 것입니다.” (교회 정사 5:181)

요셉은 주님의 사랑에 찬 견책들을 기록함에 있어 자기 본위로 하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솔직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 5편 21절에도 그러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나는 너 나의 종 요셉에게 명하노니, 회개하여 내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행하여 다시는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

사람들은 최소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최초의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결코 참된 개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회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며 선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몇 가지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는 그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자 구세주이며 구속주가 되셨다.
2.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3.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다.
4. 요셉 스미스 이후의 모든 교회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그 열쇠와 권능을 계속 지녀 왔다.
5.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현재 이 세상의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이다.

물몬경의 메시지에 대한 동의어는 “말씀”입니다. 엘마는 그 말씀을 씨에 비유하였습니다. 개종자의 마음속에 씨가 심어지면, 그 씨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라 그들의 영혼을 키우며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합니다. (엘

마서 32:28 참조) 그 말씀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계단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45~46)

말일의 사업에 있어 물몬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친이었던 데이비드 맥케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1881년에 고국인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냈으며 글래스고우 지방부를 관리하였습니다. 그 해에는 그 곳에 큰 박해가 있었으므로 그가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그 기원에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라는 이름이 거론되기만 해도 그 즉시 적개심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친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같은 단순한 원리들만 전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달 정도쯤 그는 우울하고 비관적인 기분으로 마음이 무겁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에서 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겁고 영이 침체되며 짓눌리고 구속되었다는 기분 외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누르는 느낌은 계속 되었으므로 그는 낙담하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 저는 집으로 돌아



우리는 물론경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 이후의 모든 교회 대관장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신성한 사자들이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해 준 그 열쇠와 권능을 계승하여 왔다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된 느낌으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기분은 계속 되었는데 밤을 꼬박 새웠던 어느 날, 그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될 수 있는 바다 근처의 동굴로 들어가서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쳐 왜 그런 느낌이 자신을 억누르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 느낌을 던져 버리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쭙어 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동굴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이 더 간절해져 갔으므로 그는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어떤 것이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은신처 같은 동굴로 들어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느낌을 떨치기 위

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느낌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 자임을 간증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6주 전쯤에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떠올리고는 당황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그 곳에 왔으나 그것에 상응할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으로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외치고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압니다.”라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기록에 나오는 소중한 경험들, 클레어 미들미스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1~12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도 1923년에 잉글랜드의 사우스 윌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들만 말할 수

있도록, 금식하고 진지하게 기도한 후 성찬식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제 동반자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들에 대해 말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훌륭한 영이 그 모임에 임재하였습니다. 제 동반자가 먼저 나가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나가서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 일은 이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배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말씀하였으며 그의 신성한 사명과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비회원 중 여러 명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당신들의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앤사인, 1987년 7월호, 8~9쪽)

종석은 아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종석이 없다면 아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몰몬경이 왜 우리 종교의 종석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역사와 이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이 보류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도도 없었습니다. 몰몬경이 출판된 10일 후,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몰몬경의 출판은 선교 사업보다 선행되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 스미스가 교회의 첫번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것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7편과 20편은 형제들이 몰몬경이 번역될 때까지는 말일의 사업의 신성함을 완전히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선교 사업에 있어 예언자로서의 요셉 스미스의 사명과 몰몬경의 중요성에 대

해 직접적으로 배웠습니다. 반 세기 전에 저는 더블류 엠 그랜트 밴기터 장로님과 린 에이 소렌슨 장로님 및 다른 헌신적인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개척기의 브라질 선교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어느 해엔가는 단지 세 사람만 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1986년에 22,109명의 영혼이 개종하였습니다. 현재 브라질에는 100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밴기터 장로님과 제가 동반자로 일하면서 최초의 교회 회원들을 찾았던 도시에는 5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현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 초기에는 그토록 어려웠고 지금은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전이 성경 하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몰몬경에 관련된 경험이라고는 저희들이 서툰 말로 전하는 간증을 통해서 얻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스미스와는 달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몰몬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몰몬경이 포르투갈어로 출판된 후에야 비로소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몰몬경... 을 기억... 하기 전에는”(교리와 성약 84:57)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5편에서 존 테일러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축복사인 하이람 스미스가 1844년 6월 27일에 일리노이 주의 카테지에서 순교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실천적인 현인이었던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요셉 스미스의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것에 경의를 표



몰몬경의 번역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나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교리와 성약 17:9) 주님의 계획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몰몬경이 출판된 지 10일 후,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의 교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았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증인입니다." (브리감 영 연설집, 존 에이 윌소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78년, 458~59쪽)

우리 모두가 그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가 회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가 세상에 내놓았던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힘과 권능과 확신에 차서 올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

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셉 스미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성취되어 왔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 (교리와 성약 122:1~2)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은 말일의 주님의 사업의 중심부에 있다.
2. 몰몬경의 번역 과정은 요셉 스미스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몰몬경은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복음의 교리와 회복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해 준 증추적인 도구였다.
3. 최소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최초의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결코 참된 개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4. 몰몬경은 우리 역사와 이론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내가 열 네 살이 되자, 감독님은 나를 불러 세미나리에 등록하라고 권고하셨다. 불행하게도, 나의 감독님의 권고는 내가 중등 교육 일반 증명 시험이라고 알려진 힘든 학교 시험 제도가 막 시작된 때에 있었던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나는 맨체스터에 살고 있다.) 그 시험을 지시에스이(GCSE)라고 부른다. 시험, 숙제, 모의 시험, 연구 과제, 테스트 및 실험으로 구성되는 지시에스이의 폭풍우가 막 시작된 때에 감독님께서 나에게 세미나리에 등록하라고 권유하신 것이었다.

따라서, 세미나리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형과 같은 반에서 공부한다는 것에 흥분까지 되었지만, 그러한 흥분은 조

금 후 사라지고 말았다. 물몬경이 참된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한 때에야 비로소 나는 세미나리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그 과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해의 주요 성구가 모로나이서 10장 4절이라고 배웠다. 나는 그 성구를 빨강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물몬경의 참됨에 관하여 특별한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위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매우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가 "깊이 생각지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이앤 손더스



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해[었다]"(교리와 성약 9:7)고 말씀하신 교리와 성약의 구절이 기억났다. 나도 그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을 때, 간구하는 것이 옳다는 느낌 외에는 다른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물문경이 경전인지 아니면 매우 훌륭하게 쓰여진 소설에 불과한지를 알아보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숙제를 이미 마쳤으므로, 평상시 같으면 그런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공상 과학 서적을 탐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가서 새로 산 물문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니파이이서에서 니파이의 생애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마지막 장을 찾았다.

어쨌든 나는 이 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 영이 나에게 임해 주도록 간구하는 짧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세미나리 수업 전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곤 했지만, 이번에 드리는 나의 간구는 더욱 의미 심장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가슴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을 거듭해서
읽어 나감에 따라 나는 마치
내가 실제로 니파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니파이이서 3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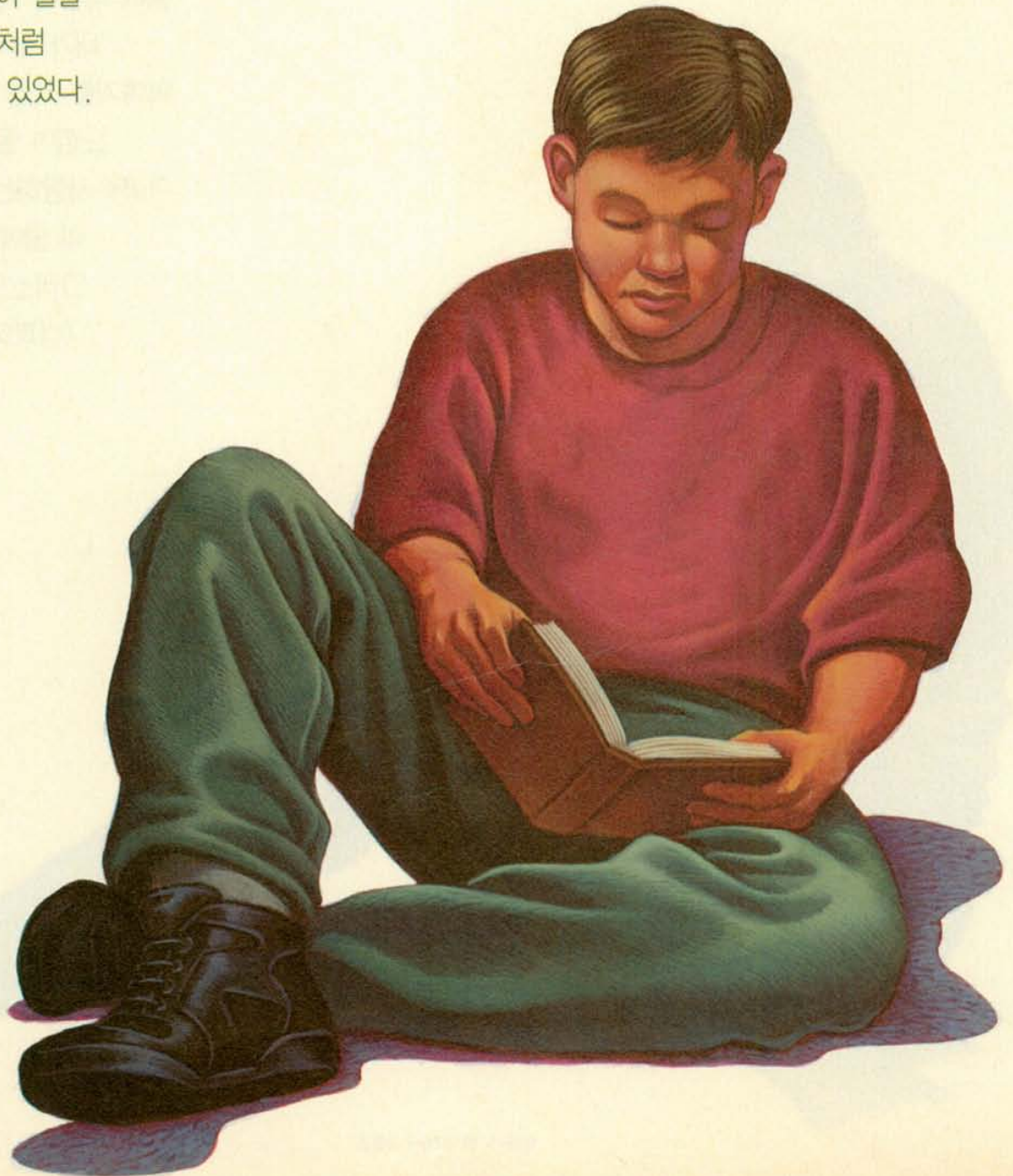
한 장, 한 장을 거듭해서 읽어 나감에 따라 나는 마치 내가 실제로 니파이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을 읽을 때는 한 예언자가 소리쳐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그 말씀 하나 하나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한 충실한 사람의 번민에 찬 외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니파이가 된 것처럼, 나는 그의 말씀에 매혹되어 32장을 읽어 나갔다. 그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지당한 것이었다. 장을 넘겨서 33장을 읽는 동안, 나는 이 분에게 완전히 동화되었다. 이 예언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얼마나 부르짖었는가를 읽으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분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몰몬경에서 그 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져 왔다.

니파이의 마지막 간증을 읽었을 때, 나는 목이 메어 하염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지식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니파이는 진실로 참된 삶을 산 하나님의 예언자요 실제 인물이었다.

몰몬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 처음으로 기도한 지 여러 주가 지나는 동안, 나는 모로나이가 약속한 것을 성취했으며, 내가 영원히 간직했으면 하는 간증을 얻었다. □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지식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니파이는 실제
인물이었다.



실험

하이디 해리스
그림 : 캐리 헨리

나는 예언자들이 권고하신 대로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어 왔다. 그래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매일 경전을 읽도록 촉구하셨을 때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바로 그날 경전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 가운데 여러 주, 아니 여러 달이 지나갔다.

너무나 어려운 수학 숙제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던 어느 날 밤, 나는 힘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맨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경대 위에 놓여 있는 물몬경이었다. 해야 할 수학 숙제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니파이일서 1장을 다 읽은 후, 나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마다 물몬경을 읽기로 했다. 그런 다음 시간을 내서 경전을 연구한 것이 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나는 비록 시간을 조금밖에 들이지 않았지만 매일 밤 경전을 읽는 습관이 더 높은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여전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경전 읽기는 내게 특별한 힘을 주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내가 연구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내심을 가지고 경전 읽기를 계속해 왔다. 나는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전 연구도 더 쉬워졌으며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 졌다.

만일 여러분의 바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실험을 해보기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영광스러운 기록”

물몬경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하늘의 기록이다.

로버트 엘 밀레트

우리는 더 밝은 날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다. 말일의 예언자들은 교회와 세상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권고의 말씀을 외쳐 왔다.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기꺼이 받지 않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주어진 성스러운 선물을 받도록 소리쳐 왔다. 그 선물은 바로 물몬경이다.

회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임

예언자들은 그 위대한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책망하는 성구를 인용해 왔다. 주님은 1832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과거에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받게 하였나니” (교리와 성약 84:54~55)

주님은 허영과 불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기 전까지]...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56~5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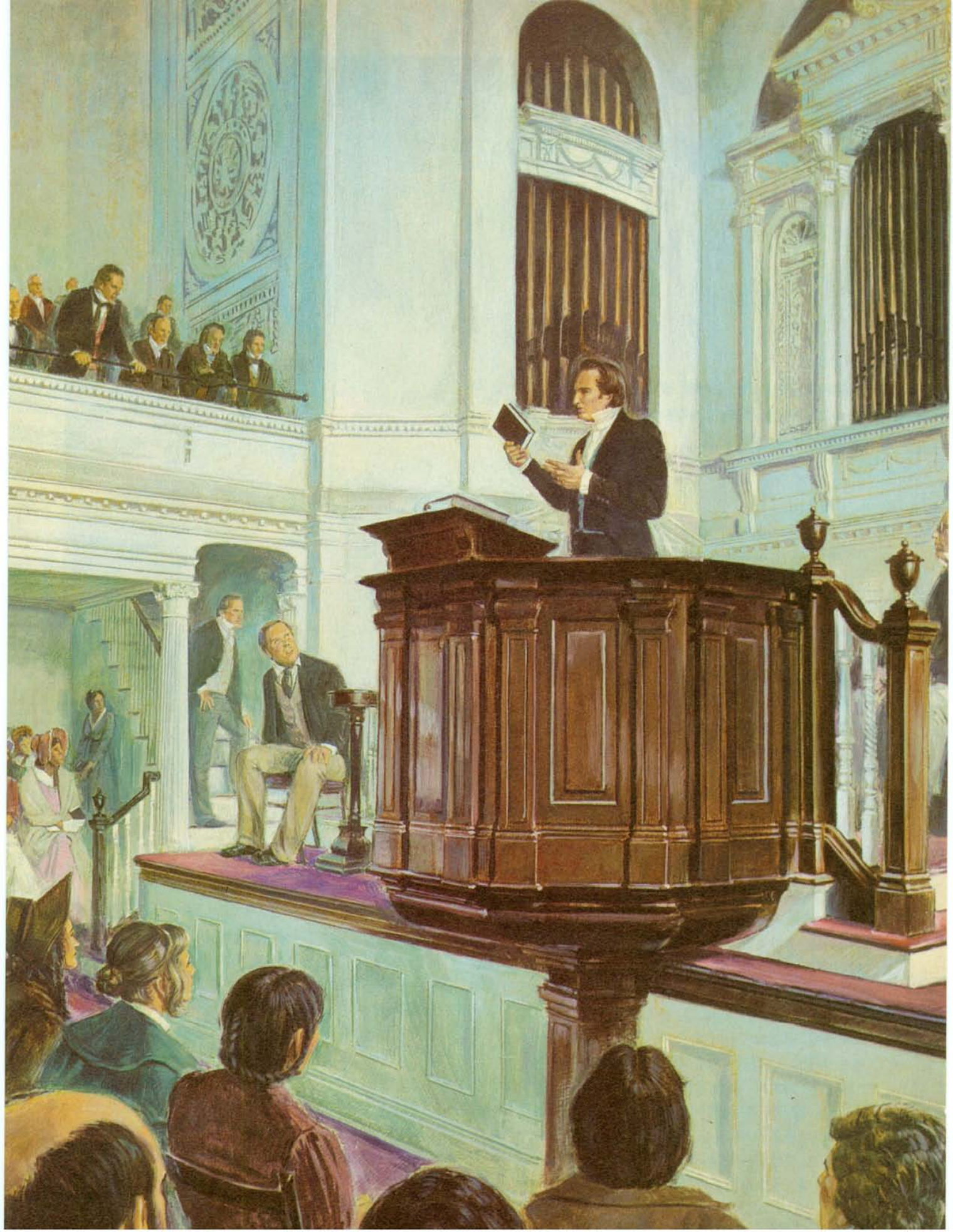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것을 진지하게 다루도록 분명하게 명령 받아왔다. 예를 들면 웨이카 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는 리맨 코프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나의 종 리맨은 이 일에 성임되리니, 저가 웨이카 교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나의 종들이 저에게 가르칠 것을 가지고 웨이카 교도와 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저를 축복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변영하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49:4)

리맨 코프리는 웨이카 교도로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말일 성도로서 배웠던 것을 근거로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했다. 교회 역사 상, 후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 원리의 힘을 설명해 준다. 팔리 피 프렛은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많은 청중들이 모인 큰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요셉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큰 교회가 개방되었으며, 약 삼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 곳에 모였습니다. 리그돈 형제가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요셉 스미스 형제가 막 포효하려는 사자처럼 일어나서 성신으

요셉 스미스가 자신이 본 시현들과 물몬경 판을 발견하고 변역한 경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와 인접 지역에서 침례를 받았다.



물몬경은 예언적인 시현으로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가 직면할 구체적인 문제를 말했던
사람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로 충만하여 자신이 보았던 시현들과 자신이 누렸던 천사들의 성역 및 물몬경의 판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그것을 번역했던 경위에 대해 간증하면서 엄청난 권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일 하늘에서 온 그토록 영광스러운 메시지와 그렇게 훌륭한 기록을 발견한 것에 대해 증거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건을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팔리 피프렛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8년, 298~299쪽)

이 때 요셉은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라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메시지는 독자적인 계시였으며 그의 증언 또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요셉이 말씀을 전한 결과는 어땠을까? “모든 청중이 놀랐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가 이야기하는 권세와 진실됨 및 그가 언급한 사건들에 압도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다.”(같은 책, 299쪽)

우리는 과거의 생활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사도 중 한 분이었던 바울의 첫번째 문제였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개종하기 전의 바울은 고대의 계시를 충실히 받아들임으로써 당대의 계시를 거절했다. 그러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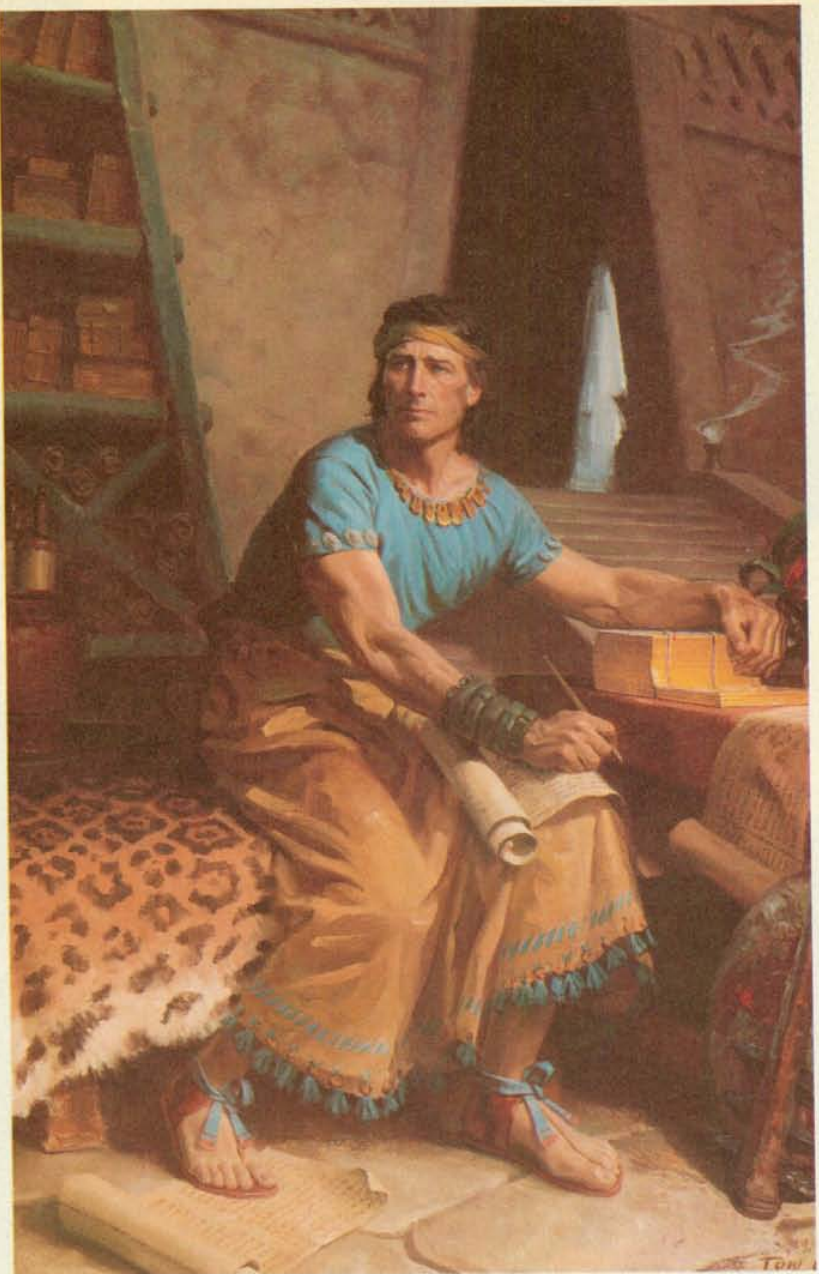


그림 : 미켈레 피에로, 1840년, 캔버스, 유채화, 111x146cm

울이 변화되었을 때, 그는 그 당시 주님의 사업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학문과 경험은 바로 그가 살던 경륜의 시대에 이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실로 회복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성경과 전통적인 필사본에 의해 물몬경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뒤쳐진 경륜의 시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길이 분명히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되도록 하며, 아덴이나 로마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로버트 제이 매튜, “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종교 교육 기구에 주는 말씀, 브리검 영 대학교, 1989년 8월 31일, 16~17쪽)

그 저주는 무엇인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왜 그러한가?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간증의 영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4년 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 쿡키 장로는 소그룹의 물론경 교사들에게 우리의 열의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적대적인 종교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자 하며, 서로 닮은 점을 많이 보여 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물론경과 회복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강조할 때만 주님과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개종자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교리와 성약에서 언급하셨던 저주란, 더 큰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경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미로운 영의 속삭임을 완전하게 들을 수 없다. 그들은 신앙이 고취되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은 물론경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키며 불안한 시대에 용기를 갖게 해준다. 분명히 그들은 그들이 물론경을 무시하는 그 정도로 그 책의 이치와 변화시키는 권세를 알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걸치레와 부적절한 것을 파악하는 판단력이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우리에게 수여된 숭고한 특권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 [물론경]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튼튼해지

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진화론, 합리주의, 휴머니즘 등에 존재하는 허위와 접하고 맞서는 데 그 책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은 세상의 경향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물론경을 갖지 않고 '세상에 나아' 간다면, 그들은 효과를

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경을 표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 공과는 영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와 경고: 현대의 예언자가 물론경을 증거함,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8년, 6쪽)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4:61)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됨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예언자들이 그들의 시대 외의 다른 어떤 시대를 위해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그 중에서 이사야, 다니엘, 바울,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먼 미래를 보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것들도 그들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기록을 읽을 훗날의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물론경은 얼마나 다른가! 그것은 선견자의 시현을 통해 우리 시대를 미리 보고 우리가 직면할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준비되었다. 다음과 같은 모로나이의 날카로운 말씀은 우리가 물론경 시대와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몰몬서 8:35)





벤슨 대관장은 그 기록을 요약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들과 사건들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우리의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들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몬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 없이 ‘왜 주님은 물론(혹은 모로나이나 엘마)이 그것을 기록에 포함시키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그것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증거와 경고, 19~20쪽)

모든 경전은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 그러나 물몬경은 자체의 영을 갖고 있다. 벤슨 대관장은 물몬경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책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 가기 시작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경전은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으로 불리우며 그 이상의 진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욱 풍성한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증거와 경고, 21~22쪽)

물몬경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물몬경을 파괴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가 치루어졌다. 주님은 몸소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라고 간증하셨다.

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하늘의 기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일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특권을 이루는 양식이다. 그것은 종교에 관한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교 그 자체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이는 곧 저들로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84:57~58)

우리의 과제는 단지 물몬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구원이 걸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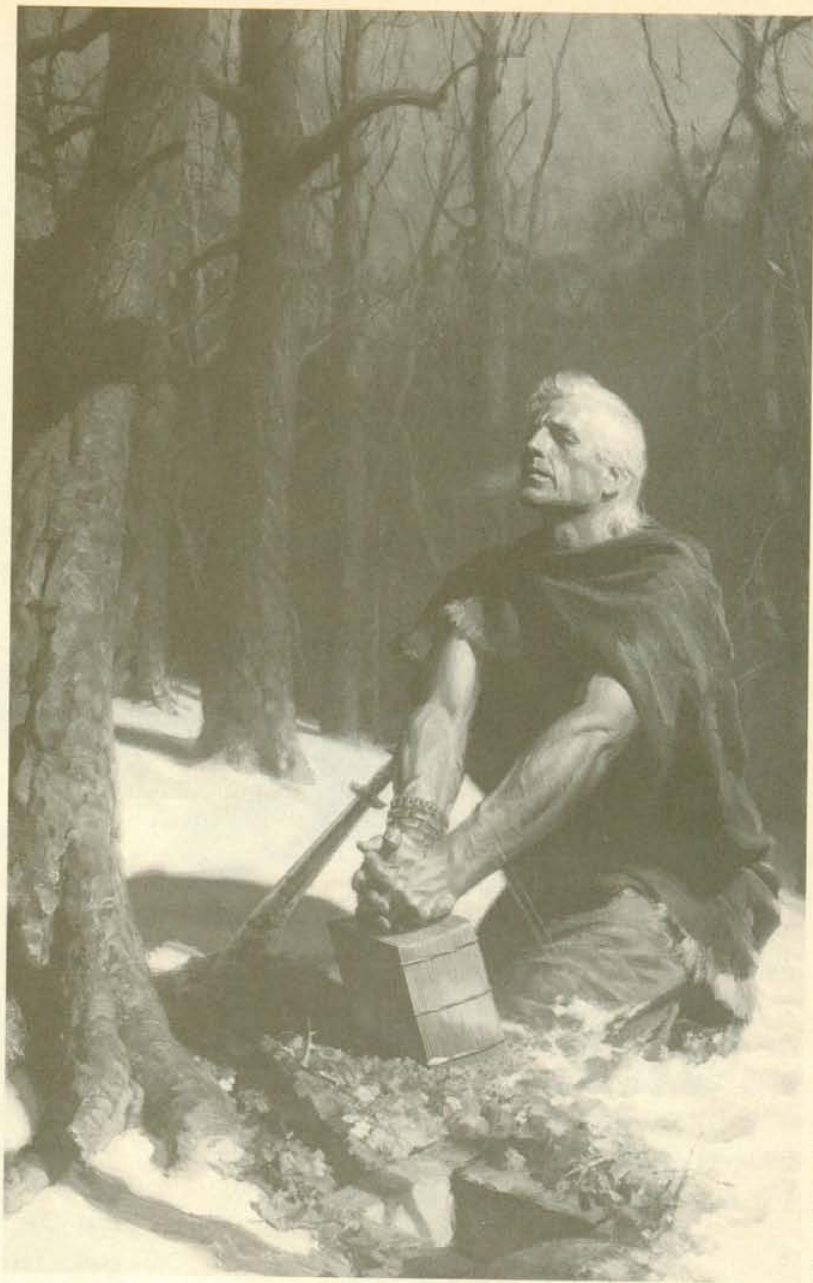
리하이가 미대륙에 도착한 뒤, 그 후 세대의 영감 받은 열왕과 예언자들

모로나이는 기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
 “때가 속히 이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사람이 무덤에서 부르짖으며 티끌
 중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은 레이밴의 검을 휘둘러 그들의 백성
 을 보호했다. 그 검은 오로지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개인이나 국가가 적에
 게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표시이자 그
 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도구였다.
 그 검은 또한 어떤 다른 것, 즉 경전과
 그런 영적인 기록을 상징했다. 리하이
 일행은 그들의 언어와 종교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낫쇠판이 필요했다. 그
 러나 한 사악한 사람이 그들의 길을 막
 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파이에게 성
 스러운 기록을 얻기 위해 레이밴을 치
 도록 명하셨다. 그 경전은 항상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졌으며 보존되었다.

이것은 몰몬경에 대한 이야기다. 몰몬경을 파괴하거나 버
 리거나 무시하려는 것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너무나 많은 피
 와 눈물이 흘려졌으며 또한 너무나 많은 대가가 치루어졌다.
 주님도 몰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 엄숙하게 증거하셨
 다. “저[요셉 스미스]는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
 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
 은 참되도다.” (교리와 성약 17:6)

현대의 어떤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몰몬경에 대
 한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몸소 자신의 신성을 걸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몰몬경이 참되거나 하나님이 하
 나님이시기를 그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신들



101페이지 3행 10행 11행 12행 13행 14행 15행 16행 17행 18행 19행 20행

에게 알려진 말 중에서 이보다 더 공식적이고 강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53
 쪽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 책에 대한 우리
 의 반응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결과가 달려 있습니까?”라
 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거나
 저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증거와 경고 7쪽)

구원 자체가 이것에 걸려 있다. 모로나이는 기록을 마
 치고 인봉하면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 “내가 너
 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말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르며 너
 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임이라. 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사람이 무덤에서 부르짖으며 티끌 중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모로나이사 10:27)



물몬경은 신앙 외에도 판단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둘 중 하나이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손을 흔드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릴 수 없는 일이다. 벤슨 대관장은 교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선포했다. “모든 말일성도들은 평생 동안 이 책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전 생애에 영적, 지적인 조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증거와 경고, 7~8쪽)

성도와 물몬경과 미래

오늘날,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수많은 말일성도들이 물몬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몬경의 정확시켜 주는 확실한 권세 외에도 그것의 오묘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로움과 영적인 것들을 더욱 열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민감해지며 죄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방법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분 주위로 몰려왔다. 그렇다면 분명히 더 이상 저주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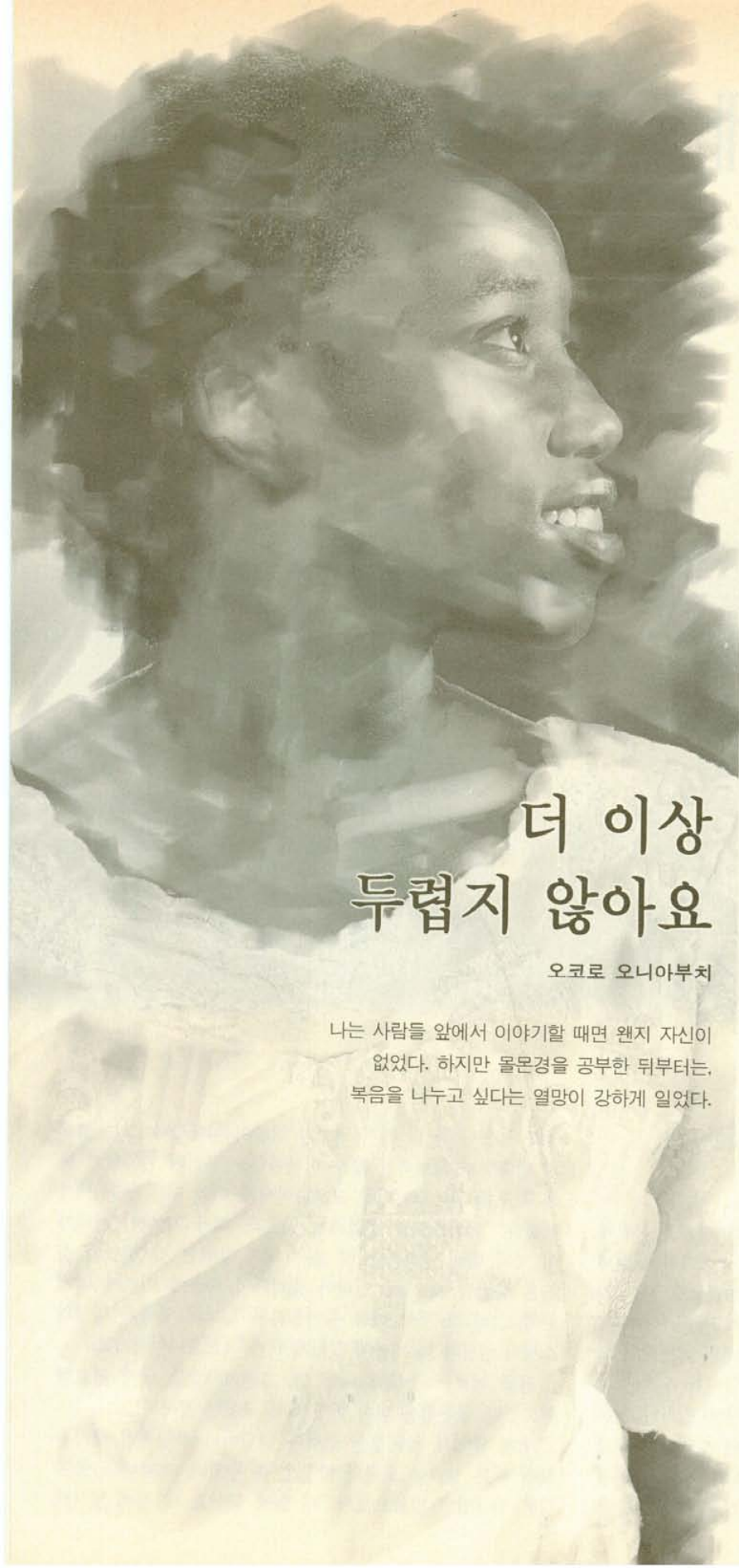
주님은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망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이는 나의 백성이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함이니, 거기 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임이라. 그 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리라.” (모세서 7:62)

그러한 축복은 순탄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무관심한 사람과 신앙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무지와 편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전복하고자 할 것이나, 교회를 반대 받는 이상으로 커질 것이니라.” (사자와 대변자, 2:19)라고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말한대로, 주님의 모든 사업은 열방의 기로 높이 세워진 물몬경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경전은 앞으로 위험한 시기가 도래할 것과 악이 증가하고 증오심이 커지는 것 및 인자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통치하려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증거한다. 그때가 되기 전,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다발로 불태워지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좇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곳에서만 안전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힐라멘서 3:35 참조),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며 (교리와 성약 88:67~68 참조),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함으로써 (앨마서 13:12 참조)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사탄의 맹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물몬경이 그 미래의 시기에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몇 안되는 버팀목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의 적절하고 영원한 책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모든 것을 행한 다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보존하고 세상에 내놓기 위해 값 비싼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과 영원히 설 것이다. □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코로 오니아부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왠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몰몬경을 공부한 뒤부터는,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다.

나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산다. 내가 열 세 살 되던 해, 그림쇼 장로와 그림쇼 자매라고 하는 부부 선교사가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그 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으며, 질문도 하였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분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마지막 토론을 하던 날, 그 분들은 우리에게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도록 권유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아 가족과 함께 침례받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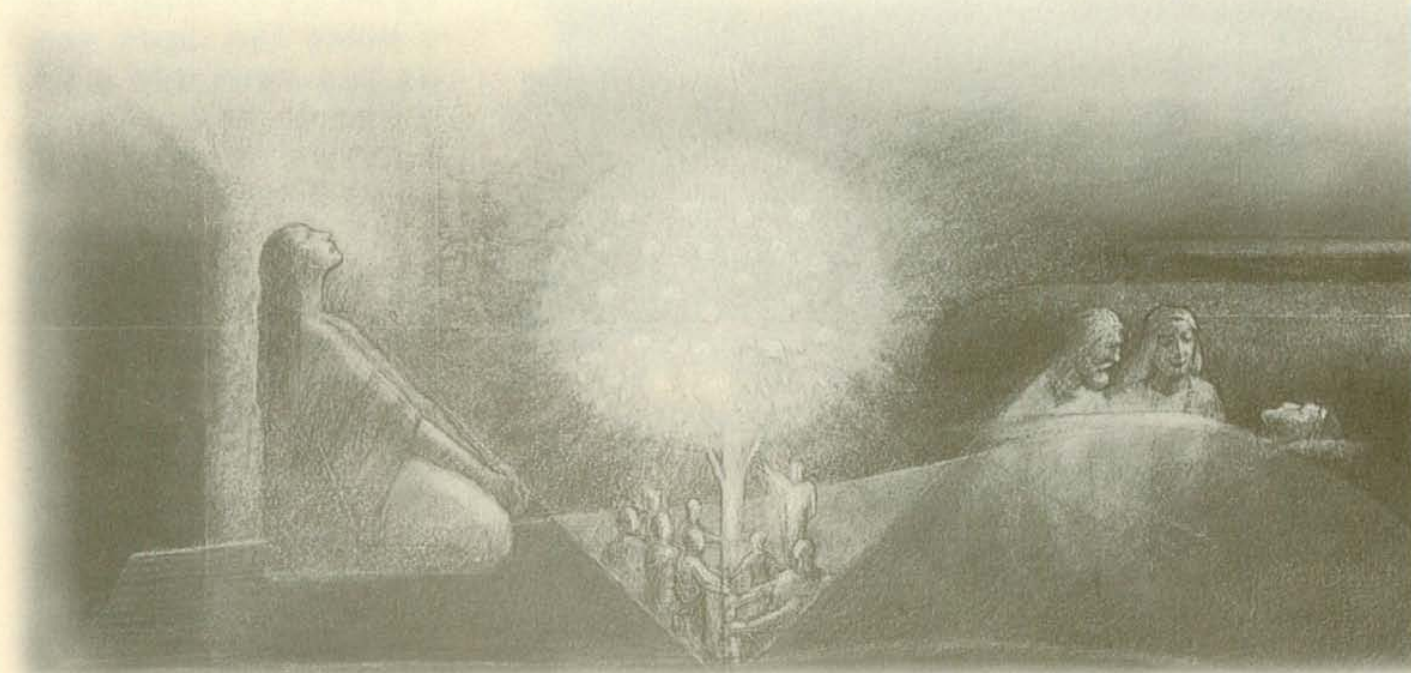
침례를 받은 후, 나는 자주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몰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새롭게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해 가는 동안,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뒤, 나는 매우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교회에 들어온 지 거의 2년 뒤에, 나는 문득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마음에 평안의 영이 거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에 가져 보지 못한 담대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나의 영적인 성장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매우 기뻐하였다. 이전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수줍음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날 지상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

내 발에 등이요

카르멘 로드리게스 디 푸엔테스



몰몬경은 내 삶의 모든 면에 빛을 비추어 준다.

그 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음을 혼란케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안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기도를 하며,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주님께 여쭙었다. 어떻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다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영화나 음악이나 텔레비전이나 기타 언론 매체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한 살 된 우리 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특히 많은 걱정이 되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문득 몰몬이 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회개하지 않은 니파이인들 사이의 가증함에 대해 회고한 후,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와 같은 글을 써서 남겼다.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내가 기록한 것(내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보았던 것, 읽었던 것 혹은 들었던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사...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 (모로나이서 9:25)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날 밤,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권고였다. 몰몬경은 다시 한번 나를 구했던 것이다!

내게 있어서 몰몬경은 언제나 낙담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 주는 강력한 도구의 역할을 해 주었다. 그보다도,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시



편 119:105)이었다.

나는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물몬경을 읽었다. 나는 이 거룩한 기록에 대한 간증을 얻었던 그날 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니파이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시현을 본 내용이 들어 있는 니파이일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읽었을 때는 놀랄 만큼 명료한 서술로 인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가 기록한 모든 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미나리에서 물몬경을 배우는 동안, 한 달 만에 한 권을 모두 읽었으며, 중요한 참조 성구 몇 구절을 암기하여 필요할 때마다 항상 머리 속에 떠올려 보곤 했다.

그 후로 나는 물몬경을 여러 차례 읽었다. 물몬경의 가르침은 내가 내 삶의 결정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등불이었다.

선교사 시절, 나는 우리 나라(과테말라)의 인디언들이 이미 전설과 관습을 통해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세주의 성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물몬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가족들이 나의 선교 사업을 허락하지 않아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몬경에서 영적인 지지를 구해야 했다.

그 후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복음의 가르침을 논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목을 몇 과목 수강했지만, 물몬경은 나에게 쇠막대 역할을 해 주었고, 나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다. 덕분에 나는 몇몇 학우들에게 물몬경과 나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교사로 일했다. 어느 날, 한 시간 동안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교실 문을 닫고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어떤 문제든 항상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그 당시만은 몹시 침울해 있었다. 인생의 몇몇 혼란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지쳐 있었다. 여태까지 한번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장막 저편으로 가는 것이 나올지 몰라. 주님께서 지금 날 부르신다면, 오히려 모든 게 더 나아질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엘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었다. “너희는… 육체로 세상에 있을 동안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받을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계속 읽어 나감에 따라, 구절 구절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왔으며, 특히 27절의 일부분이 더욱 그러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의 임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의 유치함이 부끄러워졌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생에서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으며, 이젠 내가 이 곳에서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와 남편에게 있어서, 몰몬경은 우리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날마다 서로 나누는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몰몬경을 이용한다. 우리는 니파이처럼 모든 성구를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니파이일서 19:23 참조) 우리는 야곱이 그 당시 레이맨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의 이상과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저들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사랑하나니” (야곱서 3:7)

결혼한 후, 나는 자녀들을 출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십대 시절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겪었던 적

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의사가 거듭 안심시켜 주었지만, 나는 마취 당하는 것이 무서웠다. 어떻게든 내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기로 한 전날 밤, 나는 병원에서 내곁에 있던 남편과 함께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미 받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께 내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몰몬이 한 다음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몰몬서 5:23)

수술 받은 후에 깨어나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신체 기능에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땅에 쓰러져 천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이를 동안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던 엘마 이세를 생각했다. (모사이야서 27:10~23; 엘마서 36:5~23 참조) 그 때 엘마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임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육신을 가져다 주는 일에 참여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몰몬경은 내 삶의 모든 면에 빛을 비추어 준다. 나는 몰몬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진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나는 몰몬경을 기록한 위대하고 고결한 분들—니파이, 엘마, 베냐민 왕, 힐라맨, 몰몬, 모로나이—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던 다른 분들에게 대해 감사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다. 그 분들은 우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강한 신앙의 눈을 통해 보았던 이 말일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몰몬서 8:35 참조) □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제 친구와 저는 매일 멜로 드라마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몇몇 청소년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에 반대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정말 어떤 잘못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텔레비전 쇼를 정구적으로 보는 것은 별로 해롭지 않은 오락이지만,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이러한 쇼로 인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멜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의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는가? 그 내용은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다루며, 고무적인 것인가?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셔서 마련하신 개념과 가르침과 원리에 맞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95년 9월호, 6쪽)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선하고 순수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날 여러 형태의 오락물에 의해 조장되는 세상적인 행동 유형과 오염된 생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



러분은 선과 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로 자신의 영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저지시킬 충분한 힘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쇼에서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느낄 만큼 묘사된 사건은 없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쇼가 더 이상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을 감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의 카타니아 지부에서 엘리스 파가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규적인 시청자들은 멜

로 드라마에 나타나는 악마에 대한 감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게 묘사된 부도덕은 결국 태산 같은 거짓말이 되고, 부정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멜로 드라마의 많은 등장 인물들은 자신들을 환경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멜로 드라마에 대한 또 다른 나쁜 점은 그것들의 습관적 성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특정한 쇼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을 재정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지 않고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을 보낼 수 있

습니까? 텔레비전 쇼만큼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멜로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것을 한 달만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여러분은 자유롭게 아마도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 낮고 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보느라 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5년 9월호, 6쪽)

청소년들의 대답

많은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꾸며 놓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며, 그들은 시청자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성도인 우리는 멜로 드라마의 세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전 공부,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강의, 스포츠, 청소년 활동, 주일학교 공과, 봉사 활동, 교회 봉사, 교회 잡지 및 다른 문학 서적 읽기,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복음과 관련 있는 많은 가치 있는 노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연극 작품들이나 음악회, 영화 또는 가치 있는 텔

레비전 쇼를 보는 것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무적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니 로사리오
알론소
라베가 제1와드
도미니카 공화국
샌프란시스코 테마
코리스 스테이크

우리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좋은 취미를 개발하고 부도덕한 오락물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교회 및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 의롭고, 안전하며, 건전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지니고 생활해야 하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메레나 마라우프 다 로차 도스 산토스
타투마 와드

브라질 쿠레치바 바카체리 스테이크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 일을 하고,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교회 활동에 참가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한 후에, 여러분은 약간의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복음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헬레나 마리아 실바
브라스 쿠바스 와드
브라질 상파울루 모지 다스 크루세스 스테이크

멜로 드라마나 어떠한 종류의 부도덕한 자료 등을 보는 것은 점차 우리들의 간증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선택이 앞으로 올 삶에서의 행복이나 슬픔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엘마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엘마서 41:10)



카로레나 타우라키
사에네하 제2와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마운튼 로스킬
스테이크

멜로 드라마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의로운 노력 대신에 멜로 드라마를 보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착각과 기만 및 부도덕한 세속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드라 로드리케스 콘살베스
포모사 지부
브라질 브라질리아 알보라도 스테이크

멜로 드라마는 폭력이나 부도덕 및 비현실적인 기대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치관을 조장합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된 가치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또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린 에이
관초
에스칼란테 지부
필리핀
마코로드 선교부

멜로 드라마의 세계는 비현실적입니다. 저의 의견은 교훈적인 잡지나 영감을 주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로 드라마를 보는 대신에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시청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78~79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비 란자 데 마타모로스
토로카우아 와드
온두라스 카마야우에라 토로카우아 스테이크

멜로 드라마나 이와 유사한 텔레비전 쇼를 보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고를 따르기 위해 강해지고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모로나이서 10:32)

조시발 조시아스
카마라지베 와드
브라질 레시페 카마라지베 스테이크

이 세상에서 보고 행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교활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언 16:18)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멜로 드라마와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다른 오락물 등의 나쁜 영향을 없애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몬도
본곤구이
야운데 지부
자이르 킨샤사
선교부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앞에는 결정해야 할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으로부터 되돌아설 선택을 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건전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음악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

리는 강한 간증과 깨끗한 영을 필요로 합니다

메레오푸 타포우
마라포 와드
통가 누쿠아로파 바이니 스테이크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를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됩니다.

바렌티나 라미레스
푸엔테 알토 제1와드
칠레 산티아고 푸엔테 알토 스테이크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6년 4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썼을 경우에는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되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

질문: 저는 학교에서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매일 욕설을 듣습니다. 제가 그 욕설을 말하지는 않을 지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속의 욕설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김 크렌샤 소렌슨

말일의 더욱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에 대해
몰몬경은 좋은
실례들을 보여 준다.

부 모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문화적인 혼란이 증가되는 시대에 말일성도들은 가족 생활과 가족의 사랑에 대해 귀중한 청사진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몰몬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종종 인도를 받기 위해 그 책을 펼친다. 나는 그 책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았으며, 모방할 수 있는 훌륭한 실례들을 발견해 왔다.

몰몬경은 선이나 악에 대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릇된 “조상들의 전통”(모사이야서 1:5; 엘마서 9:16; 엘마서 17:15 참조)을 따랐기 때문에 완전히 사악해진 세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책에는 의로운 전통과 가르침을 통해 자녀와 후손들이 의롭게 살도록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많은 예가 나와 있다.



의로운 모범

베냐민 왕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의로운 아버지였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가 “의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며”(물몬의 말씀 1:17) “육신의 힘과 영혼의 능력을 다”(18절)하여 일했던 “성스러운 자”였다고 말해 준다.

베냐민 왕은 세 아들이 “선조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깨달아 알”(모사이아서 1:2)도록 그들에게 조상의 언어를 가르쳤다. 또한 그는 낯쇠판에 새겨진 기록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3절 참조)

베냐민 왕은 말과 행동으로 의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음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또 그들이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모사이아서 2:17)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회개와 순종의 성약에 대한 영감을 전해 주면서

물몬경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아버지들도 의로운 전통과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27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계시를 받음

베냐민 왕의 아들인 모사이야 왕이 의롭게 통치한 것은 베냐민 왕이 보여 준 모범의 힘을 입증해 준다. 모사이야는 계시를 통해 자녀들의 복리를 구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모범을 따랐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회개하고 개심한 후, 아버지에게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모사이야는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주께



나아가...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모사이야에게 말씀하시어, 저들로 떠나게 하라. 많은 무리가 저들의 말을 믿[을 것이며]...; 내가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너의 아들들을 구원하리로다 하시느니라.” (모사 이야기서 28:6~7)

아버지들은 자녀의 육체적인 복리와 영적인 복리를 모두 살피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물론경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아버지들 역시 그들이 계시를 구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영으로 가르침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영을 구했던 예언자들도 있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이 고집 센 아들이었던 레이맨과 레뮤엘을 훈계할 때 지니셨던 큰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부친이 영으로 충만하시어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며 종래 저들이 부친 앞에서 떨었으며 부친께서 저들을 설득하시며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더라.” (니파이일서 2:14)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는다.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리와 성약 42:14) 영은 참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야곱과 그의 아들, 이노스의 관계는 영적인 교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노스서에서 야곱이 복음을 대화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이노스서 1:3)

야곱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보여 준 꾸준한 노력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왜냐하면 이노스는 부친의 말씀으로 감동 받아 죄사함을 받기 위해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이

다. 주님은 이노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니파이인의 기록을 보존하시어 적절한 때에 그것들을 세상에 내놓으시겠다고 그와 성약을 맺으셨다. (12~13, 16절 참조)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음

물론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적인 기사들 중에는 빛나간 아들을 도와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마는 그의 시대에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았다. 엘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엘마 이세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심히 간악하고 사심에 젖은 자가 되었”(모사이야서 27:8)다. 그는 부친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꺾어 냈다.

어느 날, 엘마 이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돌아다닐 때”(11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포하였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 곳에 왔[노라.]”(14절)

엘마는 결코 그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신앙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이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초과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빛나간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들

부성애에 대한 물론경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



는 친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헬라맨은 2,000명의 암몬 병사들에게 훌륭한 양부였다. 이 젊은이들은 헬라맨이 그들을 이끈다면 전투를 치르러 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헬라맨에게 품은 사랑과 존경심을 단지 짐작만 할 뿐이다.

헬라맨은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첫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 젊은이들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내가 저들을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저들이 모두 어렸고) 저들은 또 나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시여 보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지 않으시리니” (엘마서

헬라맨과 몰몬경에 나오는 다른 모범적인 지도자들은 현대의 아버지들에게 청소년들이 악에 대항하도록 그들을 강화시켜 주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56:46)

세상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삶에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는 의붓아버지, 할아버지, 숙부, 소년단 단장, 감독, 가정 복음 교사, 이웃 또는 청소년 지도자들과 같이 많은 현대의 헬라맨들로 가득 차 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 줌

우리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집과 보트와 은행 계좌와 같은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 주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반해서 물몬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아버지들은 녹슬어 못 쓰게 되지 않을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도구와 자기 통제 및 신앙을 남겨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바랄 수 있는가? 리하이와 그의 아들들인 니파이와 야곱, 야곱과 그의 아들인 이노스, 베나민 왕과 그의 세 아들, 모사이야와 그의 네 아들, 엘마와 그의 아들들, 힐라맨과 그의 아들들인 리하이와 니파이 그리고 몰몬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이 모든 아버지와 아들들은 제자가 되는 것과 훈련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몰몬경의 의로운 아버지들의 아들들은 그들이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이노스서 1:1) 가르침 받았던 것을 감사하였는데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아버지는 훌륭한 아들임

몰몬경에서 읽게 되는 최초의 기사 중 하나는 니파이가 광야에서 그의 활을 부러뜨린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아사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리하이까지 “주 하나님에 대하여”(니파이일서 16:20) 불평하였다.

니파이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활을 만들어서 그의 부친에게 나아가 “내가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리이까”(23절)라고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명예 총관리 역원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저는 이것을 몰몬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 중 하나로 해아립니다... 흔들리는 부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강함과 겸손함과 남자다움을 지녔던 아들, 그는 어쨌든 이것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며, 내부의 올바른 자신감은 사람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하나님께 여쭈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하이의 지도력은 회복되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 올해의 말씀, 1960년, 7쪽)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는 데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인 아들은 구세주 자신이다. 그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부친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완전한 성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의 아버지의 아들일 것이며 언제나 그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를 얻는다.

첫째, 우리는 아버지께 권고를 구할 수 있다. 구세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던 아들이었다. (니파이삼서 17:15~16 참조)

둘째, 우리는 아버지의 의로운 권고를 기꺼이 따르고 행위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1)고 말씀하셨다.

몰몬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도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훌륭한 아버지가 이보다 더 필요하고 귀하게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는 몰몬경의 부친에 대한 귀중한 청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위대한 경전이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아시며 말일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말일의 지도서를 주셨다는 또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이사야 2:5)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사탄에게서 유혹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십이사도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갈릴리 해변을 따라 걸으시던 중에,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19~20) 예수님으로부터 비슷한 권고를 받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마태복음 4:22)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삶의 행로를 바꾸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신들의 미래의 삶의 여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구세주를 따르는 것은 작은 걸음으로 시작됨

구세주를 따르는 신앙을 갖는 것은 작은 걸음으로 시작되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된 것보다 덜 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더욱 그분과 같이 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는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 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충실함이 라고 부르는 길에는 휴식처가 없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으며, 망설인다는 것은 결코 허

용되지 않습니다.”(앤사인, 1993년 10월 호, 4쪽) 구세주를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완전한 지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니콜라이 프리비첸치프는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을 때 완전한 지식을 갖고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복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신앙을 행사하면 스스로 충만한 진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프리브첸치프 형제와 같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길을 보여 주고 계시며 계속해서 지시를 해 주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전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셨으며, 거룩한 성전 성약도 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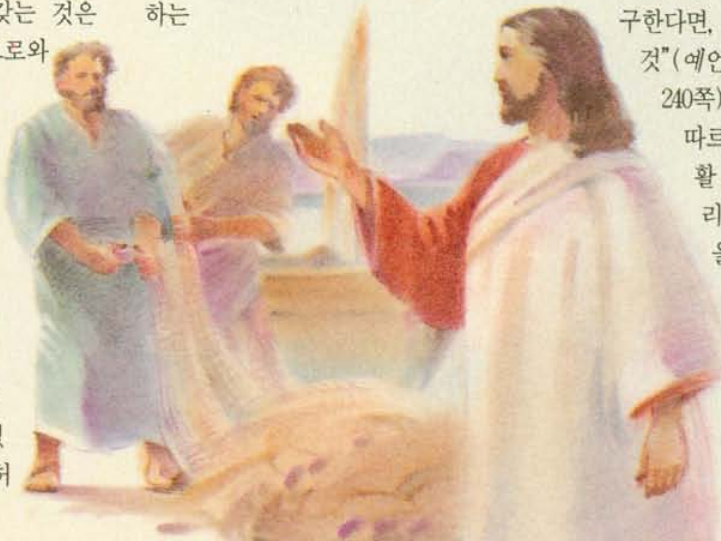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구세주를 따르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됨

예수님은 지상에 사시는 동안 다음과 같은 심오한 말씀을 널리 전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구세주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더욱 온전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영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아서 5:22~23)의 축복이다.

힘든 삶의 환경이 금세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로써 이러한 은사를 알게 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쪽)이라고 말씀했다.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을 가지면 생활 속에서 “생명의 빛”, 곧 우리를 그분께 인도해 주는 빛을 얻게 된다.

- 여러분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어떤 축복이 왔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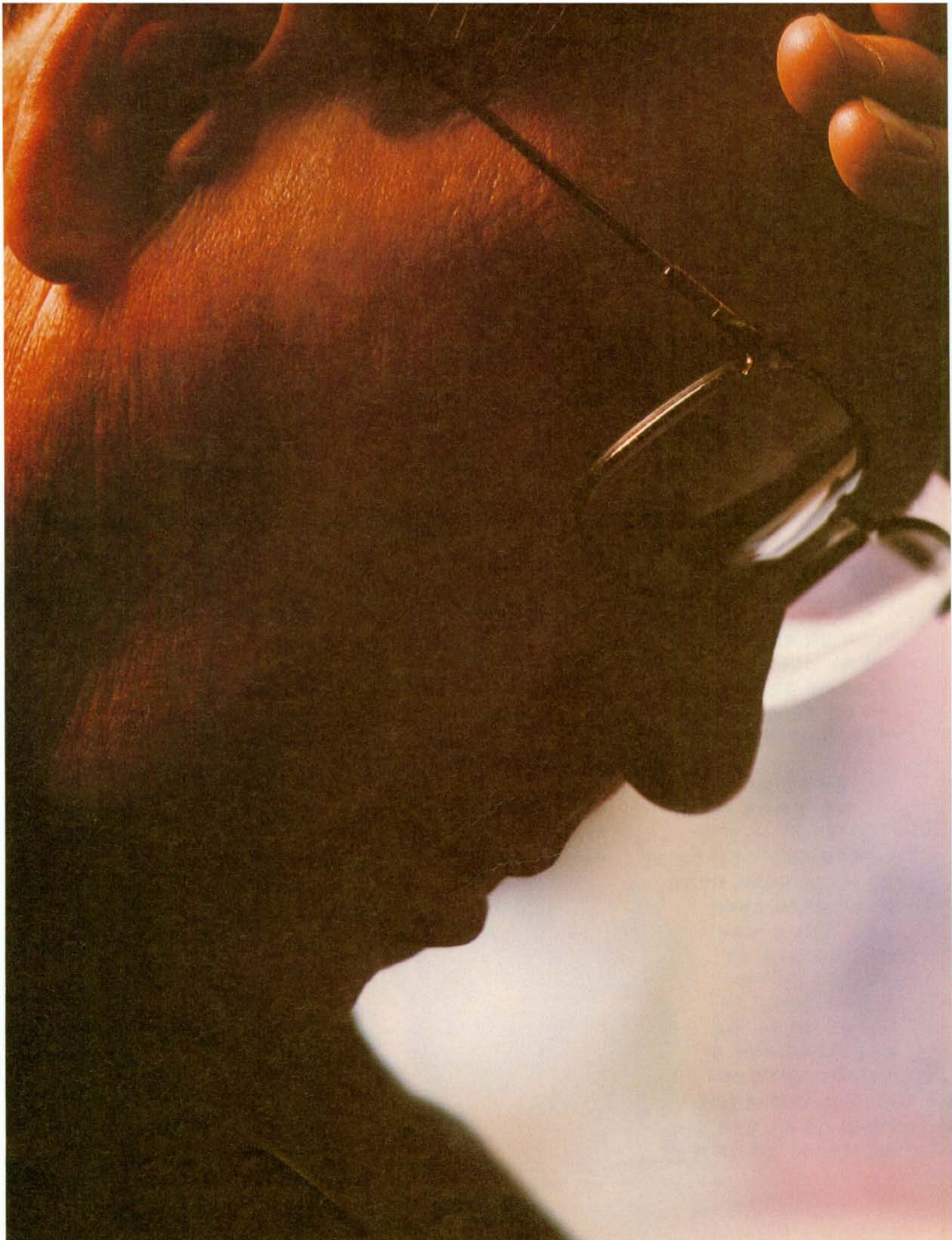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쾰른대성당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간구하라”

자비, 용서, 보호, 가족(권속), 들, 양떼.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앰울레크는 가르쳤다.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지 않도록 하라.

그 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히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라.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악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까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핍박을 받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용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 (야사 58:17~28)





효과적인 경전

리사 엠 그로버

헝클리 대관장 초상화: 제드 클라크:

왼쪽 사진 촬영: 제리 그랜스

“나는 경전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직접 또는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주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이 훌륭한 책을 사랑합니다. 나는 경전 읽기를 사랑하며, 항상 반복해서 읽고자 노력합니다. 경전은 내가 하는 말씀에 권능의 음성을 부여해 줌으로, 나는 그 말씀을 인용하기를 즐깁니다. 나는 뛰어난 경전 연구가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는 것은 학자가 되려 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연모하기 때문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성도의 벗, 1986년 6월호, 2쪽)



공 부 를 위 한 제 언

우리는 경전 공부를 통해 지식과 신앙의 축복을 받는다.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영의 속삭임에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경전 공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경전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일과 중 가장 즐거운 때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언 몇 가지를 싣는다.

시작함

-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자신의 다짐을 종이에 써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둔다.
- 아직까지 자신의 경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경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아마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경전을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고, 경전을 살 돈을 벌기 위해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에는 교회 도서관이나 친구에게서 빌리도록 한다.
- 경전 공부를 하는 동안 연필을 손에 쥐고 있도록 한다. 자신의 경전의 여백이나 공백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절에 대해 공부한 것을 깨끗하게 적도록 한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하게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도록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처음에 계속해서 경전을 읽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인내심을 갖는다. 인내하면 날마다 공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며, 곧 날마다 경전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게 된다.
- 현재의 상황대로 시작한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고 해도,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되,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가장 적절한 시간에 공부하도록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전 읽기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경전을 읽는다.

보다 이해를 잘하기 위해

-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한다.
-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는 연령일 경우에는,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4년 과정 모두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 장의 요약 부분을 읽는다. 그 장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 어려운 개념을 이해한 뒤에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개념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개념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가족과 함께 경전 이야기를 읽는다.
- 가정의 밤에 참여한다. 얼마 동안 공과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난 후

- 경전 일지를 적는다. 여러분이 읽은 각 장이나 여러 장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는다.
- 경전의 유형을 찾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구세주의 삶에 관한 모든 참조 성구나 봉사에 관한 모든 참조 성구에 표시할 수도 있다.
- 특별한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참조 성구에 중점을 둔다. 성경의 구절들이 물론경의 구절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 어떤 복음 원리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가지 읽는다. 그 원리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대화 말씀을 읽고 유사점을 찾는다.
- 성구에 관한 간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물론경의 앞 부분에 간증을 적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

단 둘이 보내기

트래시 배런드
사진 : 크레이그 다이몬드

니키는 동생인 브렉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니키가 동생의 티셔츠를 빌려간다든지, 브렉이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누나 니키가 싫어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니키와 브렉은 둘 다 그들의 다툼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을 때, "단 둘이 보내기"라는 스테이크 활동 모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둘이 보내기"는 여러분이 가족 중 한 사람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단 둘이서만 좋아하는 것을 한 시간 동안 하는 활동입니다. 이 시간에 우정을 증진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좋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니키는 브렉이 사이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초대해서 사이다를 마시러 갔습니다. 브렉은 누나가 사이다를 사 주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한 화해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후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한 번의 단 둘이 보내기가 끝난 뒤, 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뽑내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나이의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나와 함께 보낸 시간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참석했던 다른 젊은이들은 그들의 형제나 자매와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티스 몰리는 어렸을 때, 그의 동생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동생과 매일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고, 여름 동안 배구 연습을 하기 위해 그의 자전거로 동생을 태우고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날이 지남에 따라 그는 마음속에 들어 있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큰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대신에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 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옆에 있는 그러한 친구인 훌륭한 배구 파트너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단 둘이 보내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한 명 선택한다. 그를 “단 둘이 보내기”에 초대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난 정말 너와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산책하고 싶니?”

“사이다가 먹고 싶은 것 같구나. 내가 사 올게.”

■ 여러분은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어떤 때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 좋아할 활동을 하나 선택한다.

■ 만약 그가 바빠서 함께 갈 수 없다면, 서로가 편한 다른 시간을 찾아본다.

■ 여러분의 단 둘이 보내기가 여러분을 반드시 불화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단 둘이만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지한 관심을 보여 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 본다.

■ “이번 주에 가장 즐거웠던 일 세 가지만 말해 보겠니?”

“수학 시간이 즐겁지 않은 모양이구나?”

“축구팀은 잘 되어 가니?”

■ 금전이나 어떤 일을 부탁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만 집중한다.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는 피한다.

■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한다.



이러한 "단 둘이 보내기"가 형제 자매간의 관계에 도움을 줍니까? 유타 주에 있는 두 개의 스테이크에서 참가한 몇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제 동생 브래디와 저는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서로 함께 보낸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겐 학교 생활과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코 그와 함께 보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곧 브래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한 다음, 저는 바로 그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따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조금씩 쉬워졌고, 그런 후에 저는 그가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

"단 둘이 보내기를 함께 하는 동안, 우리는 테이블을 들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린 함께 사탕도 만들고,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저는 첫단추를 끼워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떤 일을 그와 함께 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제게 옵니다."—브리 터리 브래머

"저는 제 동생에게서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에리카 스테판

"저의 10대의 세계는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0분 후에 저의 언니가 함께 외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같은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시드니 샤프트

"제 동생은 얼마나 미운 짓을 하였는지 그 옆에 앉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군가가 그와 함께 "단 둘이 보내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야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엔 함께 사전거를 탔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는 그가 전처럼 짓궂게 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을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조나단 메이어스

"저의 큰 오빠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으므로, 저는 얼마 동안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침낭을 가지고 그의 침대 옆에서 자도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달까지 거의 매일 밤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는 못했겠지만, 가까워진 우리의 우애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희생에 불과한 것입니다."—맷 로우

"저와 제 여동생은 전화를 사용한 다든지 서로의 옷을 빌리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불쾌해 하곤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로 말도 안하고 화난 얼굴로 흘겨보곤 했습니다. 네 번째 "단 둘이 보내기"를 함께 하는 동안, 우리는 테이블을 들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린 함께 사탕도 만들고,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앤지 우드워드 □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 시간을 사랑합니다. 수년 동안 가정의 밤 모임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움의 손길”이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개회 찬송과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손이 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 그리기, 동물 돌보기, 집안 일 돕기, 과자 만들기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손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색도화지에 대고 여러 개를 그린 후 그것을 오려내어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곧 우리는 각자 일주일 동안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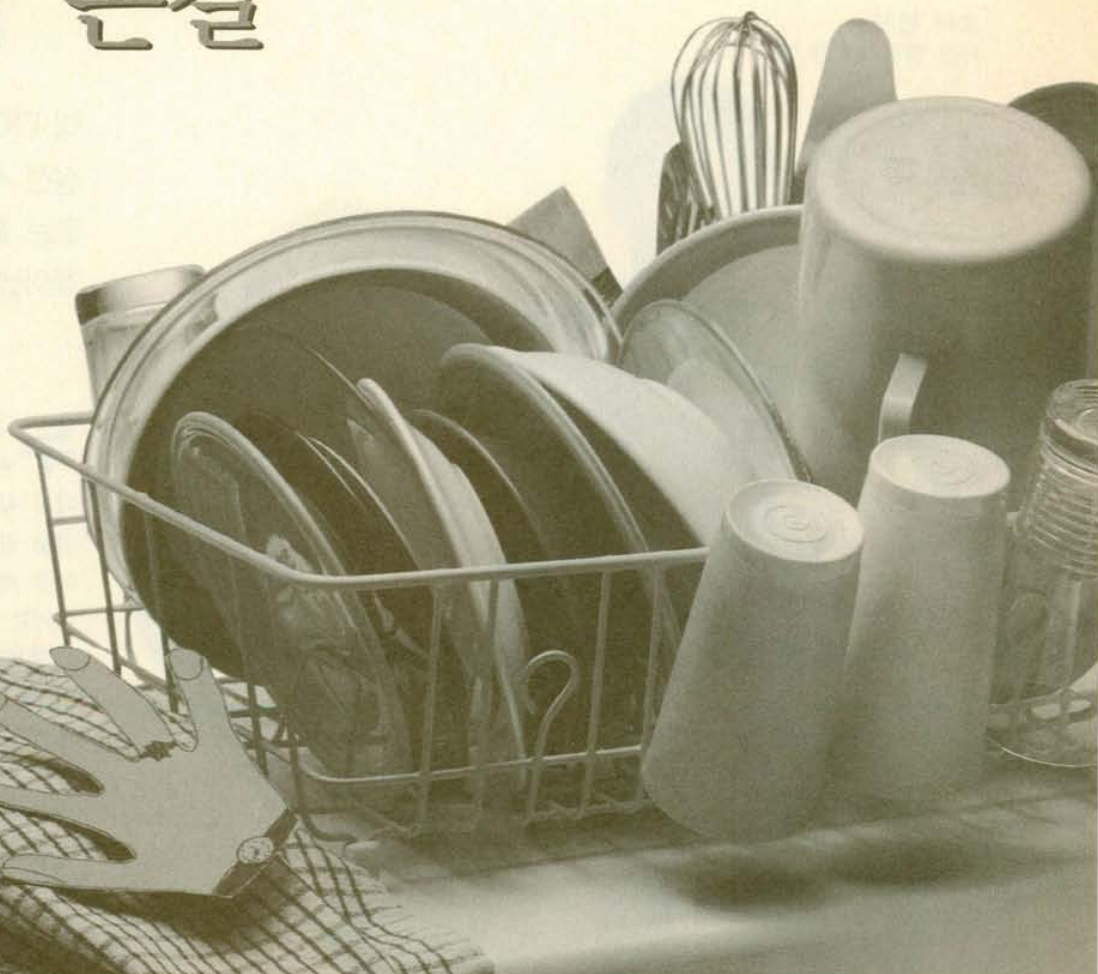
게 될 여러 개의 “도움의 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우리는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도움의 손”을 남겨 놓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한 주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침대 정리가 끝난 후 베갯맡에서, 설거지가 끝난 주방에서, 어질러져 있던 인형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리가 된 거실에서 “도움의 손”들이 발견되곤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함께 하는 이런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

도움의 손길

보니 헨슨 켈리





성 전 봉사

로리 립시
사진 촬영: 첸 첸 엘

이 타이완의 십대들은
성전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누구든지 봉사를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니퍼 왕과 첸 엔 첸이 하는 일은 기저
귀를 갈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죠."라고 제
니퍼는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남
겨 놓고 성전에 가면 와드에서 유아반
을 맡는 열 일곱 살의 제니퍼와 열여덟
살의 첸에게는 기저귀 가는 일을 제외
하면 특별히 다른 불평할 만한 일은 없
었습니다. "봉사와 어린 아이들에 대해
서 더 잘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라





聖約堂
總會堂
聖約堂
聖約堂

聖約堂

고 첸은 말했습니다. 타이완 타이페이 지역인 타오 안의 제2지부의 회원인 제니퍼와 첸에게는 아기 돌보는 일이 정말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그들은 이것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남게 되길 원했습니다.

타이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1984년

에 그들의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무를 다하고 성전 사업을 행하는 일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일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와 첸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회원들도 아기 돌보기를 자원하게 되자 봉사 계획안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청녀로서, 우리는 아침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은 후에 바로 옆 예배당 건물로 가서 성전에 간 교회 회원들의 아기를 돌보기로 했어요”라고 월계반 회장이며 세미나리 회장인 제니퍼는 설명합니다. 열 살 또래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게 되자, 제니퍼와 첸은 어린이들을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 동안 그냥 장난감을 주고 놀게 내버려 두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유아반을 더욱 교육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비디오와 활동 시간을 갖는 것 외에도 제니퍼와 첸과 그 외에 아기를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물론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성전의 중요함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성전 그림을 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도 스스로 성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단지 네 시간 동안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뭔가 더욱 특별한 일을 하길 원해요.” 교회 회원이 된 지 삼 년이 다 되가는 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어린이들의 얼굴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을 돌보았을 때 그들과 마음속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라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어린이들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두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세 살이고 또 하나는 두 살이에요. 그들은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제니퍼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녀가 아기를 돌봐 주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부모들 중 한 명만이 성전에 가고 나머지 한 명은 자녀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심 없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과 성전에 가고 싶을 때 우리 워드에 또 다른 청남 청녀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니퍼와 첸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

제니퍼 왕(아래)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행복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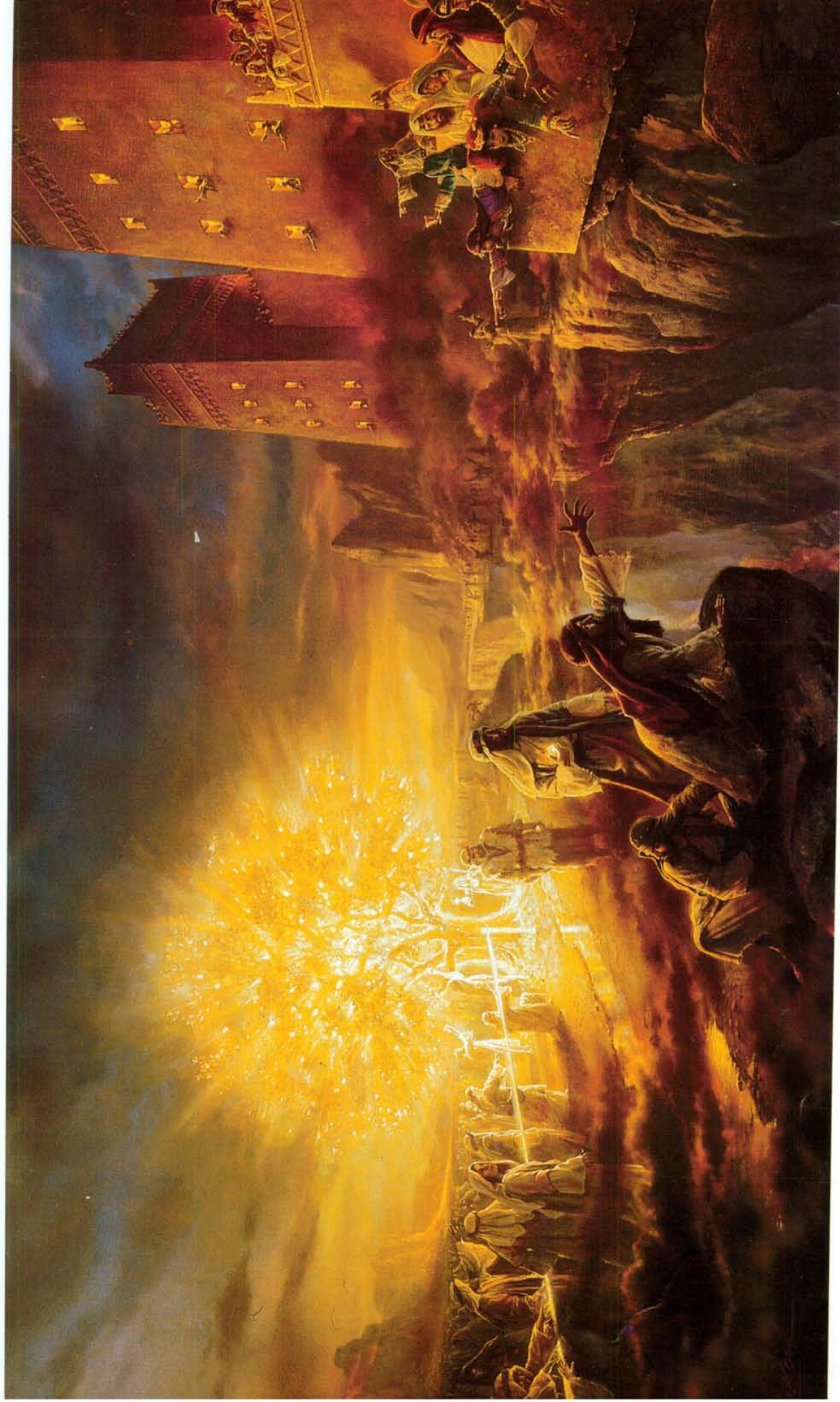


그림: 그레이그 케이 울슨, 리하이의 꿈

예언자 리하이는 시현에서 생명의 나무를 보았다. 이 생명의 나무에 달린 먹음직스러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했다. 쇠막대를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도 있었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세상을 의미하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많은 무리가 찾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니파이일서 8:11 참조)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앨마서 34:21, 24, 27)

예언자 앰올레크의 권고는
34쪽의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잘 나타나
있다.

